

# 전쟁 자동사 내용 연구

김 응 모\*

< 차례 >

I. 머리글

III. 마무리

II. 전쟁 자동사의 내용

## I 머리글

###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낱말밭(Wortfeld)<sup>1)</sup> 이론에 근거하여 현대 국어 중 전쟁 자동사가 지니고 있는 개개의 낱말(word)<sup>2)</sup>들이 하나의 낱말밭 속에서 차지하고 있

\* 부산 외국어 대학 교수

1) Leo Weisgerber(1964:70)는 “ein sprachliches Feld ist ein Ausschnitt aus der muttersprachlichen Zwischenwelt, der durch die Ganzheit einer in organischer Gliederung zusammenwirkenden Gruppe von Sprachzeichen aufgebaut wird.”라고 하였다.

신익성(1974:57)은 “개개의 언어 요소는 더욱 큰 단계 안에서 지양되고, 이 관계로부터 비로소 의미 혹은 내재적인 규정을 얻는다는 견해는 현대 언어학의 체계 개념이다. 낱말밭은 언어 내용 연구의 방법론적 중심 개념이고 동시에 언어적 세계상을 알아내기 위한 열쇠이다. 우리는 낱말밭 안에서 언어 내용의 각인(刻印)과 한계를 위해서 결정적인 모국어의 전체를 파악한다”고 하였다.

2) E.A.Nida(1979:32)는 “To determine the linguistic meaning of any form contrast must be found, for there is no meaning apart from significant difference. If all the universe were blue, there would be no bluness, since there would be nothing to contrast with blue. The same is true for the meaning of word. They have meaning only in term of systematic contrast with other words which share certain features with them but contrast with them in respect to other features.”라고 하였다.

는 위치가치(Stellenwert)<sup>3)</sup>를 우리 언어공동체의 세계관(Weltansicht)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려고 시도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별 낱말들이 다른 낱말과 변별되는 특성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이희승(1985) 「국어대사전」에서 어휘를 발췌하고, 신기철·신용철(1982) 「우리말큰사전」과 김광해(1993) 「유의어·반의어사전」에서 어휘를 점검 보충하였다.

논의의 방법은 어휘의 내용(Inhalt)에 따라 원어휘소(Archilexem)<sup>4)</sup>를 중심으로하여 부분발(Teilfeld)으로 분류하고, 먼저 큰발(Grossfeld)<sup>5)</sup>의 공통 특성을 논의한 후 여기에서 분절되어 나온 작은 영역의 공통 특성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개별 낱말의 변별적 특성(Unterscheidende züge)을 추가하였다.

우리는 전쟁 자동사의 분절성(Artilation, Gliederung)<sup>6)</sup>을 고찰함으로써 전

3) 홍승우(1988:93)는 “일정한 구성 요소의 수로 이루어진 한 낱말 영역 내에서 그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 한 낱말의 내용은 그 낱말의 고유가치(Eigenwert)와 위치가치(Stellenwert)에서 생긴다. 이 때에 때로는 해, 달처럼 고유가치가 우세할 때도 있고, 위치가치가 결정적일 때가 있다”고 하였다.

4) Horst Geckeler(1973:23-30)는 “원어휘소는 한 낱말 전체(또는 상위분절) 내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발(Feld) 속에서 기능하는 모든 어휘소에 대하여 내용적 기초를 제공하는 공통분모(Nenner)이다. 일정한 발의 어휘소는 개별 언어에 있어서 어휘적 단위로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휘소는 낱말발 속에서 기능하는 단위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낱말은 원어휘소로 집약되고, 낱말발 구성 요소가 어휘소(Lexem)이며, 이것이 다시 의의소성(Sem)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원어휘소는 원의미소(Archisememe)의 어휘적 실현이다.

E.A.Nida(1979:187)는 “Generic meanings are normally listed at the beginning of a set, either as constituting a separate domain or as fulfilling the function of a title for a domain. Such generic terms may be called archilexems in hierarchical classification”이라고 하였다.

5) 李益煥(1986:66)은 “color : red, black, yellow 등에서 color는 포괄적인 단어이며, red는 부분장이다. 부분장들은 그 단계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장 역할을 하고, 그 장은 다시 자신이 거느리는 부분장들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낱말발은 계층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6) Jost Trier(1973:7)는 “언어의 기본적인 본질은 분절이므로(Das durch die ganze Sprache herrschende Prinzip ist Atticulation) 분절의 결과인 최종의 구성 요소는 본질과 작용에서, 그리고, 그 언어 전체에서의 분절성에 의하여, 그 위치가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개개의 낱말들은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수와 위치에 의하여 상호 그것들의 의미를 규정하며, 개개 낱말의 이해는 전체 영역과 그것의 특별한 구조가

쟁 자동사의 의미 요소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중간세계(die geistige Zwischenwelt)<sup>7)</sup>에서 어떻게 분절되어 있는가를 밝히게 되며, 자동사의 어휘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2. 전쟁의 개념

최근의 국제법에서는 식민지 지배 및 외국의 점령, 인종차별 체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이른바 ‘민족해방전쟁’과 한 국가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정치적 권력 집단간의 무력투쟁도 전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쟁은 군사적 측면의 정치·외교·경제·심리·사상 및 과학기술 등도 무력 수단과 마찬가지로 전력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은 정치적 권력집단 사이에서 조직적인 정치·경제·사상 및 군사력 등을 사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투쟁행위라 할 수 있다. 전쟁의 개념과 정의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하지만, ①전쟁은 국가의 존망과 생사의 문제이다. ②패자는 승자의 의지 앞에 굴욕적인 굴복을 당한다. ③전쟁은 약속이나 계약에 의하여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의지에 의하여 시작된다. ④민족이나 국가 사이의 분쟁은 조정기관에 의하여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유일한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구사하여 왔다. ⑤전쟁은 지금까지 인류 생존의 기본요소가 되어 왔고, 또 인간의 천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전쟁은 양상을 달리하면서도 계속 존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일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에 달렸다”고 하였다.

- 7) 배해수(1982:8)는 “인간에게 구비되어 있는 언어의 힘은 정신 활동으로서 발현되며, 외계의 작용에서 이것을 사상적 형상(das gedankliche Gebild)으로 개조하고 언어로서 정착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이 인간의 정신이 외계와 만나는 장소를 정신적 혹은 언어적 중간세계라 한다”고 하였다.

Leo Weisgerber(1971:121)는 정신적 중간세계를 다음과 같이 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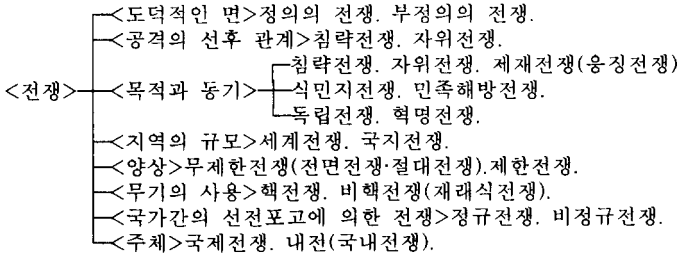
Lautformen	geistige Zwischenwelt	Aussenwelt
	Gedankengebilde	Erscheinungsfülle
Baum →	Baum ←	← Dung
Tisch →	Tisch ←	← Sachen

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나, 조미니(Jomini,B,D)는 정부가 전쟁을 하는 원인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권리의 회복 및 보호, ②주요 국가 이익의 보호, ③세력 균형의 유지, ④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념의 전파·말살 또는 보호, ⑤영토의 획득에 의한 국가의 영향력 및 세력의 증대, ⑥정복욕의 충족이다. 전쟁은 반드시 원인과 동기에 의해서 발발한다. 원인은 예외없이 장기간에 걸쳐 전쟁의 결의와는 별도로 교전국 쌍방간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동기는 많은 경우 미묘하고 교활하게하여 개전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키기 위하여 감추어져 식별하기 어렵지만, 한 편이 먼저 침공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전쟁의 유형은 전쟁의 어떤 특성을 기초로 삼느냐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도덕적 기준에 의하면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으로 구분되고, 전략이 공세적인가 수세적인가, 그리고 공격의 선후에 따라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으로 구분된다. 전쟁의 목적과 동기에 의하면, 침략전쟁·자위전쟁·제재전쟁(웅징전쟁)·식민지전쟁·민족해방전쟁·독립전쟁·혁명전쟁 등이 있다. 지역적 규모의 기준에서는 세계전쟁과 국지전쟁으로 구분된다. 전쟁의 양상의 기준에서는 무제한전쟁(전면전쟁·절대전쟁)과 제한전쟁, 사용 병기의 종류에 따라 핵전쟁과 비핵전쟁(재래식 전쟁), 그리고 선전포고에 의해 정규군대간에 수행되는 정규전쟁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전쟁이 있다.

전쟁의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와 국가간에 수행되는 국제전쟁과 한 국가내의 정치권력 집단간에 수행되는 내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복합되어 하나의 전쟁 형태를 이룬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은 북한 측에서 말하면 민족해방전쟁이고, 한국측에서 본다면 침략에 대한 자위전쟁이고, 유엔에 의한 제재전쟁이며, 또한 국지·제한·재래식 전쟁이었다.

[그림 1] 전쟁의 유형



이 연구는 전쟁(戰爭)<sup>8)</sup> 자동사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전쟁성→전쟁 발생성, 선전 포고성, 전쟁 개시성, 사전성(私戰性), 공전성(公戰性), 청빙성, 발군성, 전방 근무성, 종군성, 역전성, 종전성> 등이 내용에 따라 부가된다. 행위의 추체는 대체로 국가와 군인이다. 전쟁 자동사의 상위 분절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수형도(tree diagram)<sup>9)</sup>가 된다.

8) 戰은 「홀로 단(單)」과 「창 과(戈)」로 구성된 글자이다. 單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첫째,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그물의 상형, 둘째, Y자형의 나뭇가지 끝에 돌을 매달아 만든 원시적인 무기의 상형, 셋째, 방패의 상형 등이 그것이다. 어쨌든 세 가지는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무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戈는 긴 창 상형으로 찌를 때 뿐 아니라 휘둘러 때나 끌어당길 때도 살상이 가능한 무기였다. 그리고 보니 戰의 두 구성 단위는 살상을 위한 무기의 상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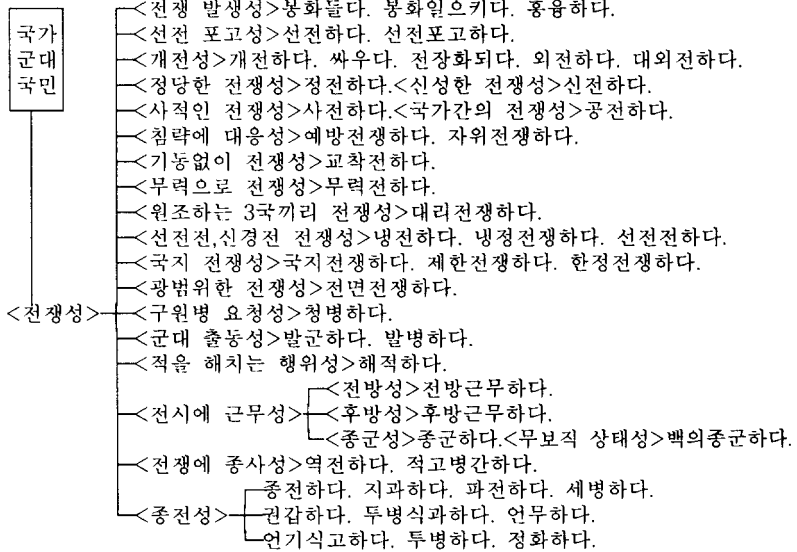
爭은 지금의 형태에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 갑골문을 보면 두 사람의 손이 무슨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잡아당기고 있는 모양의 상형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爭은 위와 가운데가 손의 형상이며, 아래로 그은 한 획은 바로 서로 빼앗으려는 물건의 변형이다. 이 물건을 「소빨」이라 하기도 하고, 무기인 「창」 혹은 「몽둥이」라고도 한다. 그것이 창이라면 이미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건 전투인 셈이다.

「戰爭」이란 단어는 막강한 무력으로 전국시대를 종결하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마천의 史記「秦始皇本紀」에 처음 보인다. 위대하신 황제께 하 덕분에 「人人自安樂, 無戰爭之患」라는 구절이 보인다. 당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 희생된 오랜 전쟁이 끝난 뒤 진시황의 위업(?)을 그 면전에서 찬양한 周青臣의 아침이다(金彦鍾, 1996년 12월 7일 조선일보).

9) 언어의 분석을 수형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오늘날 언어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19세기 중엽 A.Schleider가 생물학의 본보기에 따라, 인공어의 분화 과정을 수형도로 표시한데서 유래한다.

특정적 성분의 도식화 방법에는 수형도(tree giagram) 방식, 공간분할(space) 방식,

[그림 2] 전쟁 자동사의 상위 분절 구조



## II 전쟁 자동사의 내용

다음 (1)-(12)까지는 전쟁의 발생과 전쟁의 전개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전쟁성→전쟁 발생성, 선전 포고성, 개전성, 외전성>이 내용에 따라 추가된다.

- |                  |                |
|------------------|----------------|
| (1) 불화들다(烽火-)    | (2) 불화올리다(烽火-) |
| (3) 불화일으키다(烽火-)  | (4) 선전(宣戰)하다   |
| (5) 선전포고(宣戰布告)하다 | (6) 흥융(興戎)하다   |
| (7) 개전(開戰)하다     |                |

위의 (1)-(3)은 “불화불(烽火)<sup>10)</sup>을 켜서 적의 침입을 알리다”의 개념을 공유

특음(matrix) 방식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변별의 경제성과 그리기 쉬운 잇점을 고려하여 수형도 방식을 취한 것이다. 성분의 도식화 방법에는 E.A.Nida(1979:40)참조.

10) 불화는 나라에 병란이 있을 때에 하던 신호불이다. 주요한 산정에 불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똥을 태우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하였다. 평상시에는 초저녁에 한 번, 적이 보이면 두 번, 적이 국경 가까이에 노면 세 번,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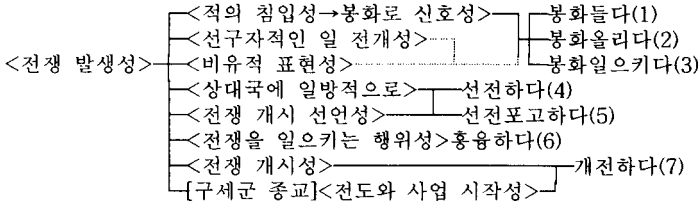
하고 있으므로, 현대전이 아니라 전날의 전쟁으로 이해되며, 현대전의 경우라면 통신기구가 없을 때의 신호체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쟁 발생성, 적의 침입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는 유의어(類義語)<sup>11)</sup>이므로 한 동아리에 묶였고, 또 “선구자적인 일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선구자적 일 전개성+비유적 표현성(figurative language)<sup>12)</sup>>도 공통으로 추가된다. 그리고, (4)와 (5)는 “상대국과 전쟁 상태에 들어감을 일방적으로 선언 공포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전쟁 개시 선언성>이 추가되고, (6)은 “전쟁을 일으키다”의 개념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나 상대국 및 목적이 무표로 되어 있으므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성>이 추가되며, (7)은 “전쟁을 시작하다. 싸움을 시작하다”의 개념이니, 전쟁의 시작이 변별성을 지니고 있어 <전쟁 개시성>이 추가되고, 또 “구세군에서 전도와 사업을 시작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구세군--전도와 사업 시작성>이 더 추가되어 분절한다. 앞에서 논의한 전쟁의 발생에 대한 분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네 번, 접전하면 다섯 번을 올린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봉화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사가 뛰어가서 전했다. 조선조 때에는 600여 곳에 봉화대가 있었으며, 병조에서 관할했다. 낭연(狼煙), 낭화(狼火), 수연(燧煙), 봉수(烽燧), 관화(燿火)라고 한다.

- 11) Palmer, F.R.(1976:95)는 “유의성은 의미의 동질성을 뜻한다. 감정적 의미(emotive meaning) 또는 평가적 의미(evaluative meaning)에서 다르나 인지적 의미(cognitive meaning)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 남기심 외2인(1985:156)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나 똑같은 개념적 의미, 감정적 어조,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쓰이는 동의어들은 존재하기 힘들다. 고로 유의어라 부르는 것이 편리하다. 우리말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으로 되는 유의어의 유형이 크게 발달되어 있으며, 또한 외래어와의 대립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 12) 임지룡(1993:214-215)는 “날말의 고유한 의미 이외에 비유적인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그 결과 고유한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가 공존될 경우 다의어가 형성되는 것이다. Ullmann은 비유적 표현(figurative language)을 사물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metaphor)와 사물의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metonymy)를 들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3] 전쟁 발생의 분절 구조



- (8) 싸우다  
 (10) 싸하다  
 (12) 전쟁(戰爭)하다  
 (9) 싸움하다  
 (11) 싸싸우다  
 (13) 전장화(戰場化)되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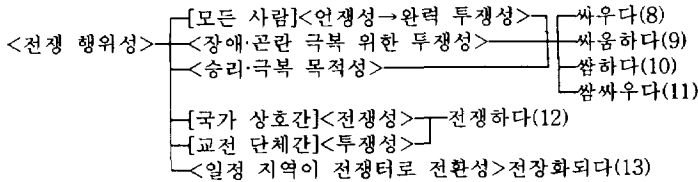
위의 (8)-(11)은 “군대를 풀어서 무력을 써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다. 전쟁을 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전쟁 행위성>이 공통으로 추가되고, 또 “말이나 힘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다투다”의 개념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주체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므로 <모든 사람--전쟁성+완력으로 투쟁성→승리 목적성>도 공통으로 추가되며, “장애·곤란 등을 극복하려고 하다”의 개념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장애·곤란과 투쟁성→극복 목적성>도 더 추가되는 다의어(多義語)<sup>14)</sup>이다. 그리고, (12)는 “싸움하다”의 개념일 경우는 (8)-(11)과 같은 개념이고, 또 “병력에 의한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교전단체간에 투쟁하다”의 개념일 경우는 <국가 상호간--전쟁성>과 <교전단체간--투쟁성>이 내용에 따라 추가되며, (13)은 “전쟁터로 되다”의 개념이므로 <일정 지역--전쟁터로 전환성>이 추가되나, 지역과 주체국은 무표로 되어 있다. 앞의 전쟁 행위의 분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13) 襄禧任(1988:5)은 “피동은 반드시 문법적 징표(marker)가 나타나야 하며, 이 징표는 서술어에서 접미사 파생에 의한 피동사이거나 ‘아/어지다’ ‘되다’ 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14) 李益煥(1986:95)은 “다의어(polysemy)는 하나의 어휘가 둘 이상의 의미적 장(semantic field)에 참여하거나 혹은 하나의 장 내에서 같은 어휘가 더 포괄적인 장에 속하고, 또 그 장 내의 더 독특한 부분장(sub-field)에도 속하는 경우가 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림4] 전쟁 행위의 분절 구조



다음 (14)-(56)까지는 전쟁의 유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쟁의 유형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 |                   |                   |
|-------------------|-------------------|
| (14) 내전(內戰)하다     | (15) 혁명전쟁(革命戰爭)하다 |
| (16) 혁명전(革命戰)하다   | (17) 무력혁명(武力革命)하다 |
| (18) 폭력혁명(暴力革命)하다 | (19) 무혈혁명(無血革命)하다 |
| (20) 반정(反正)하다     |                   |

전쟁의 주체가 국내인가, 아니면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인가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뉘어지는 데, 위의 낱말들은 한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므로 <내전성>이 공통으로 부가된다. 따라서, (14)는 “한 나라 안에서 전쟁하다”의 개념이니, 전쟁의 주체가 내국인끼리이나 전쟁의 목적은 무표이므로 <내국인--전쟁성>이 추가되고, (15)와 (16)은 “혁명을 위해 진행되는 전쟁을 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혁명전쟁 전개성>이 공통으로 추가 되면서, 전쟁의 목적과 동기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7)과 (18)은 “무력으로서 혁명전쟁을 전개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무력의 사용이 변별성이 되어 <무력 사용성→혁명전쟁 전개성>이 공통으로 추가되고, (19)는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한 유혈을 보지 아니하고 평화 수단으로써 혁명을 이룬다”의 개념이므로, 무력이 없는 혁명이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 <평화롭게 혁명 완수성>이 추가되므로 (17-18)과는 반대대립을 이루고 있다. (20)은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다시 세우다”의 개념이니, 폐위와 새임금의 즉위가 문제가 되어 <포악한 임금 폐위성→새임금 즉위성>이 추가되고, 또 “난리를 바로잡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난리 평정성>이 더 추가되며, “바른 상태로 돌아가다”의 개념일 경우는 <사필 귀정성>이 추가된다.

- |                              |                     |
|------------------------------|---------------------|
| (21) 외전(外戰)하다 <sup>15)</sup> | (22) 대외전(對外戰)하다     |
| (23) 국제전쟁(國際戰爭)하다            | (24) 공전(公戰)하다       |
| (25) 정규전쟁(正規戰爭)하다            | (26) 비정규전쟁(非正規戰爭)하다 |
| (27) 사전(私戰)하다                |                     |

위의 낱말들은 전쟁의 주체가 국가간인가 사적인 전쟁인가가 주된 변별력이다. 따라서, (21)-(26)은 <국가간에 전쟁성>이 공통으로 추가되고, (27)은 <사사로운 전쟁성>이 추가된다. 위의 (21)-(26)은 “국가의 뜻에 따라 두 나라 이상 사이에 전쟁하다”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 <두 나라 이상이 전쟁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나, (25)는 “적대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다”의 개념이므로, 선전포고의 유무가 문제가 되어 <적대국에 선전 포고성→정규 전쟁성>이 더 추가되고, (26)은 “적대국에 대하여 선전포고 없이 전쟁하다”의 개념이므로 <적대국에 선전포고 없이 전쟁성→비정규 전쟁성>이 더 추가된다. 그리고, (27)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의 명령 없이 사적으로 전쟁을 하다. 성격상 아무리 애국적인 행동일지라도 국제법상 범법행위가 된다”의 개념이니, 전쟁의 주체가 개인에서 분절되므로 <개인적인 전쟁성+국제법상 범법적 행위성>이 추가되어 분절하므로, (21-26)과는 반의대립을 이루고 있다.

- |                     |                   |
|---------------------|-------------------|
| (28) 침략전쟁(侵略戰爭)하다   | (29) 무력전(武力戰)하다   |
| (30) 식민지전쟁(植民地戰爭)하다 | (31) 제재전쟁(制裁戰爭)하다 |
| (32) 보복전쟁(報復戰爭)하다   | (33) 응징전쟁(膺懲戰爭)하다 |
| (34) 예방전쟁(豫防戰爭)하다   | (35) 자위전쟁(自衛戰爭)하다 |

위의 낱말들은 전쟁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변별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28)과 (29)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무력공격을 하다. 좁은 뜻으로는 남의 나라 영토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격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전쟁의 목적이 남의 영토를 빼앗기 위함이니 <타국의 영토 침략성→영토 탈취 목적성>이 공통으로 추가되고, (30)은 “다른 나라를 자기의 식민지로 하기 위하여 전쟁하다”의 내용이므로, 전쟁의 목적이 남의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함

15) 沈在箕(1983:355)는 “외래동사의 국어화 과정에서 ‘-하-’는 유일한 국어 동사화 기능이다. ‘-하-’는 파생접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고, S. Martin(1954:17)은 “‘-하-’를 명사 후행동사(postnominal verbs)라고 하고, 동사성 명사(verbal noun) 곧 동작성 성행요소와 어울려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G. J. Ramstedt(1939:66-67)는 “‘-하-’는 동사로서 다른 여러 종류의 동사를 형성하기 위하여 결합한다”고 하였다.

이니 <다른 나라 침략성→식민지화 목적성>이 추가되며, (31)-(33)은 “국제법을 어긴 나라에 대하여 그를 응징하기 위하여 전쟁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한 국가를 응징성>이 공통으로 추가된다. 그리고, (34)는 “군사적 충돌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하며 또한 지연시킨다면 더욱 큰 위험을 격어야 될 것이 예상될 때,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하는 전쟁을 하다”의 개념이니 <군가적 충돌 불가피성→위험 예상성→선제 공격성→예방 전쟁성>이 추가되며, (35)는 “외국의 급박하고도 부정확한 침해로부터 자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하여 마지 못해서 전쟁하다”의 개념이므로 <외국의 급박한 침해성→불가피하여 전쟁성→방위 목적성>이 추가되므로 (28)-(32)와는 반의대립을 이루고 있다.

- |                   |                   |
|-------------------|-------------------|
| (36) 세계전쟁(世界戰爭)하다 | (37) 전면전쟁(全面戰爭)하다 |
| (38) 절대전쟁(絶對戰爭)하다 | (39) 대리전쟁(代理戰爭)하다 |
| (40) 국지전쟁(局地戰爭)하다 | (41) 제한전쟁(制限戰爭)하다 |
| (42) 항전전쟁(限定戰爭)하다 | (43) 한지전쟁(限地戰爭)하다 |
| (44) 국지전(局地戰)하다   | (45) 국부전(局部戰)하다   |

위의 낱말들은 전쟁의 양상에서 전쟁의 규모가 변별성을 지니고 있어 <전쟁의 양상성→전면 전쟁성+국지 전쟁성>이 내용에 따라 부가된다. 그래서, (36)은 “세계의 여러 나라가 어울려 전쟁을 하다”의 개념이니 <세계 대전성>이 추가되고, (37)과 (38)은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전쟁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제약, 구속 탈피성→전면적인 전쟁성>이 공통으로 추가된다. 그리고, (39)는 “당사국보다는 오히려 그 쌍방을 원조하는 제3국끼리 대신해서 전쟁하다”의 개념이므로 <전쟁 당사국 제외성→원조하는 제3국끼리 대리 전쟁성>이 추가되므로 전쟁에 관련된 나라는 적어도 4개국 이상이 되며, (40)-(45)는 “전투 목표를 군사시설·전투원에 한정하고, 전투 구역도 일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전쟁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전투 목표--군사시설·전투원에 한정성+일정 구역내에서 전쟁성>이 공통으로 추가되므로 (36)-(39)와는 반의대립을 이루고 있다.

- |               |               |
|---------------|---------------|
| (46) 정전(正戰)하다 | (47) 신전(神戰)하다 |
|---------------|---------------|

위의 낱말들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유형을 말하고 있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가 변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

쟁으로 양분되나 이 낱말들은 어휘 사전(辭典)<sup>16</sup>에 공백(lexical gap)<sup>17</sup>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46)은 “정당한 전쟁을 하다”의 개념이니 <정의의 전쟁성>이 추가되고, (47)은 “신성한 전쟁을 하다”의 개념이므로 <신성한 전쟁성>이 추가되며, 또 “신에게 관계되는 싸움을 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신과 관련된 전쟁성+종교 전쟁성>이 추가되므로 종교와 관련된 전쟁이다.

(48) 핵전쟁(核戰爭)하다                      (49) 재래식전쟁(在來式戰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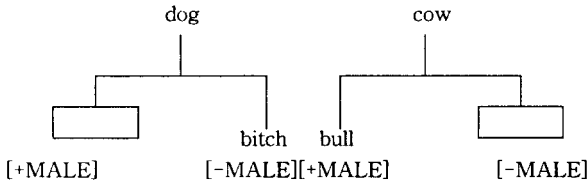
위의 낱말들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중 핵의 사용 여부에 따라 분절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48)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쟁하다”의 개념이니 <전쟁에 핵무기 사용성>이 추가되고, (49)는 “전부터 내려온 방식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하다”의 개념이니 <재래식 전쟁성+핵무기 사용 금지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50) 이념전쟁(理念戰爭)하다                      (51) 타공(打共)하다

16) 한인희(1976:49)는 “언어학의 필수 문헌인 사서에 대하여 그것을 너무 존엄시하고 도전의 전의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사서는 오늘날의 언어학의 발달 내지 시대적 조류에 너무나 격리된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사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발전되는 언어 문화 속에서 적절한 어휘의 사용과 이해는 점점 복잡다기화하는 어휘체계와 더불어 효율적인 실효를 거두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종래 어휘집의 이용도는 단조로우며 다양한 방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서의 효율을 늘리기 위하여 어휘의 구조적인 분석을 본격적으로 학문화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고 하였다.

17) 李益煥(1986:95)은 “공백(lexical gap)은 어휘체계 내에 있을 법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부분장(sub-field)에서 어휘가 둘 기대되는데 사실은 하나가 결여된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고 있다.



허 발(1977:33)은 “체계의 네벨에 있어서 내용으로서는 존재하고 있으나 규범의 네벨에서는 낱말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Coseriu는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도 낱말로 실현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52) 멸공(滅共)하다

(53) 냉전(冷戰)하다

(54) 냉정전쟁(冷靜戰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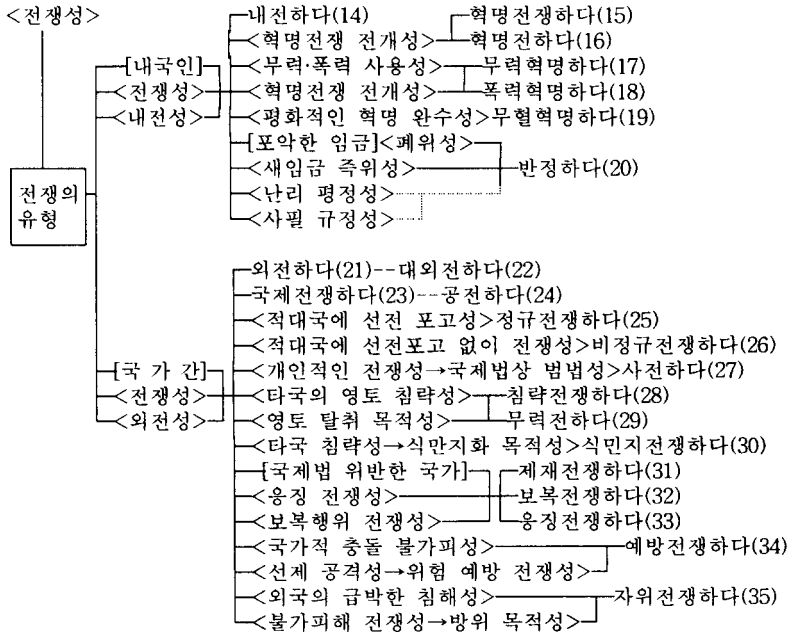
위의 낱말들은 사상·이념의 전쟁으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이므로 <이념 전쟁성+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성>이 공통으로 추가된다. 따라서, (50)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상을 가지고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국가와 전쟁하다”의 개념이니 <반대되는 사상국과 전쟁성+이념 전쟁성>이 추가되고, 이 낱말은 이 작은 발에서 원어취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51)은 “공산주의 및 그 국가를 타도하다”의 개념이니 <공산주의·공산국가 타도성>이 추가되므로, 전쟁의 주체는 민주국가로 인지되고, (52)는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망시키다”의 개념이므로 <공산주의·공산주의자 멸망시키는 행위성>이 추가된다. 이 낱말 역시 행위의 주체는 민주주의로 이해되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51)과 (52)와 같은 낱말은 공백(lexical gap)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53)과 (54)는 “선전전이나 신경전 따위의 날카로운 국제 긴장 전쟁을 하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선전전·신경전 전개성+긴장 전쟁성>이 공통으로 추가된다. 이 낱말은 미국의 시사 평론가 리프만(Lippmann)이 최초로 쓴 말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힘의 정책으로부터 미·소 대립이 격화된 이래 쓰이기 시작했다.

(55) 교착전(膠着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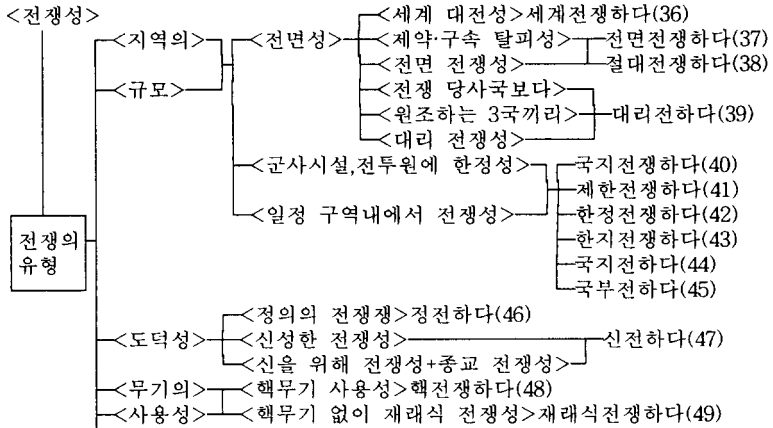
(56) 선전전(宣傳戰)하다

위의 (55)는 “양군의 기동력이 거의 없는 형태의 전쟁을 하다”의 개념이니, 기동력의 유무가 변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동력 없이 전쟁성+일정지역에 불박이로 전쟁성>이 추가되고, (56)은 “정신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고 또한 자기 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피아간에 선전에 주력하다”의 개념이므로, 전쟁의 방법이 선전에 의하고 있으므로 <피아간에 선전에 주력성→정신적으로 적 타격성+야군의 사기 고양성>이 추가되며, 또 “정당 같은 데서 어떤 주장이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서로 이해와 공명을 얻고자 싸우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정당--자기의 주장 설명성→이해·공명 획득 목적성>이 더 추가되어 분절한다. 앞에서 논의한 전쟁의 유형별 분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5] 전쟁의 유형별 분절 구조(1)



[그림6] 전쟁의 유형별 분절 구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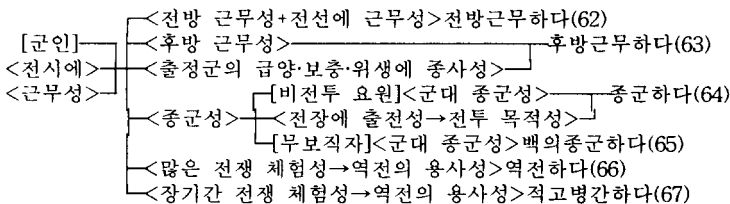
무하다”의 개념이니 <군인--전시에 전방 근무성>이 추가되고, 또 “전투에서 적과 맞서 있는 제일선에서 근무하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전투 중 제일선에 근무성>이 더 추가되며, (63)은 “전시에 후방에서 근무하다”의 개념이므로 <전시에 후방 근무성>이 추가되고, 또 “출정 군대의 급양·보충·위생에 관한 일을 맡아보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출정군의 급양·보충·위생에 종사성>이 더 추가되므로 (62)와는 근무 지역과 역할 면에서 반의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64)는 “전투 목적 이외의 일로 군대를 따라 같이 다니다”의 개념이니 <비전투 요원--군대 종군성>이 추가되고, 또 “싸우기 위하여 싸움터에 나가다”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 <전장에 출전성→전투 목적성>이 더 추가되며, (65)는 “아무 벼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종군하다”의 개념이므로 <무보직자--종군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결국 (64)와 (65)는 종군은 하되 보직이나 전투요원 등 심분이 변별성을 지니고 있다.

(66) 역전(歷戰)하다

(67) 적고병간(積苦兵間)하다

위의 낱말들은 군인으로서 전쟁의 경험이 변별력을 지니고 있다. (66)은 “많은 싸움을 격다”의 개념이니 <군인--많은 전쟁 체험성→역전의 용사성>이 추가되고, (67)은 “여러 해를 싸움에 종사하다”의 개념이므로 <군인--장기간 전쟁에 종사성→역전의 용사성>이 추가되므로, 이 두 낱말은 많은 체험과 장기간의 전쟁에 종사에 의해 분절된다. 앞에서 논의한 전시에 군인의 근무에 관련된 분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8] 군인이 전시에 근무하는 분절 구조



- (68) 종전(終戰)하다  
 (70) 파전(罷戰)하다  
 (72) 권갑(卷甲)하다

- (69) 지과(止戈)하다  
 (71) 세병(洗兵)하다  
 (73) 투병식과(投兵息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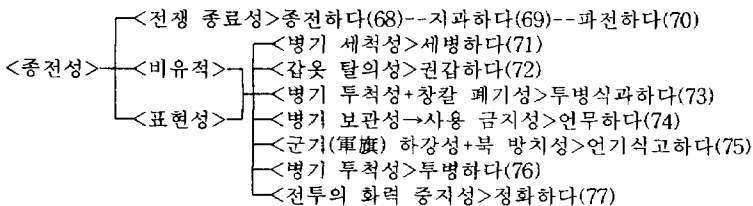


(74) 언무(偃武)하다  
(76) 투병(投兵)하다

(75) 언기식고(偃旗息鼓)하다  
(77) 정화(停火)하다

위의 낱말들은 모두 “전쟁이 끝나다”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 <종전성>이 공통으로 추가된다. 따라서, (68)-(70)은 “전쟁을 끝내다”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위의 공통 특성과 같고, (71)은 “병기를 씻어서 거둔다는 뜻에서 온 말로 전쟁을 끝내다”의 개념이니 <병기 세척성→종전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며, (72)는 “갑옷을 거두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쟁을 그만두다”의 개념이므로 <갑옷 탈의성→종전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73)은 “병기를 던지고 창을 멈춘다는 뜻으로 전쟁을 그만두다”의 개념이니 <병기 투척성+창칼 폐기성→종전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고, (74)는 “무기를 보관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다”의 개념이므로 <병기 보관성+사용 금지성→종전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며, (75)는 “전쟁터에서 군기를 누이고, 북을 켜는 뜻으로 전쟁을 쉬다”의 개념이므로 <군기 하강성+북 휴식성→휴전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된다. 그리고, (76)은 “병기를 던지다”의 개념이니 <병기 투척성→종전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고, (77)은 “전투의 화력을 멈추다”의 개념이므로 <전쟁의 화력 종결성→종전성+비유적 표현성>이 추가되어 분절한다. 앞에서 논의한 종전의 분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9] 종전의 분절 구조



### III 마무리

현대 국어 전쟁 자동사 77개의 낱말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쟁 자동사의 내용 중 많이 분포된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전쟁의 유형

별에 따른 내용은 모두 43개(55.84%)이다. 이들 중 대외전이 34개(44.16%)로 가장 많고, 대내전은 9개(11.69%)로 세 번째로 많다.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인 대외전 43개의 내용만 가지고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지전쟁이 6개(17.64%), 이념전쟁이 5개(14.71%), 대외전쟁이 4개(5.19%), 침략전쟁과 응징전쟁 및 전면전쟁이 각각 3개(3.9%), 정규전쟁, 비정규전쟁, 사적인 전쟁, 예방전쟁, 자위전쟁, 대리전쟁, 정당한 전쟁, 종교전쟁, 핵전쟁, 재래식전쟁 등이 각각 1개씩(1.3%)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의 전쟁인 대내전 9개의 내용은 혁명전쟁이 5개(55.56%), 내전, 반정, 교착전, 선전전 등이 각각 1개씩(11.11%)으로 분포되어 있어 대내전보다는 대외전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다.

종전이 10개(12.99%)로 두 번째로 많고, 전시에 군인의 근무가 6개(7.79%)인데, 이들은 종군과 전쟁의 체험이 각각 2개(33.33%)이고, 전방근무와 후방근무가 각각 1개(16.67%)이다. 그리고, 파병이 2개(2.6%)이고, 구원병의 청원과 적군에 가해행위 및 전쟁의 시찰이 각각 1개씩(1.3%)으로 분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분포로 보아 전쟁의 내용은 국가간에 싸우는 대외전쟁이 많고, 대내전쟁은 지극히 적으며, 종전의 표현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리고, 군인이 전시에 근무하는 내용에도 우리 언어공동체(Sprachgemeinschaft)<sup>18)</sup>의 깊은 관심이 드러나 있다.

2. 행위의 주체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 어휘의 수는 117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이유는 전쟁은 국가가 행하되 그 실제적인 행동을 군인이 하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다. 이들 내용 중 국가가 57개(48.72%)로 가장 많고, 군인이 54개(46.15%)로 다음으로 많다. 여기에서 국가와 군인을 합하면 111개(94.8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혁명가로 추정되는 내용이 5개(4.29%)이고, 위정자나 사령관으로 인지되는 내용이 1개(0.85%)이다. 즉 전쟁의 주체는 거의 모두가 국가와 군인이며, 혁명가가 약간 분포되어 있다.

18) Leo Weisgerber(1967:21)는 "der Inbegriff der Menschen, die in Wirkungszusammenhang der stehen"이라고 하였다. 언어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것은 모국어의 세계상이다. 즉 모국어의 작용을 통해 언어공동체 전구성원들이 공통의 차원에 올라서고, 이러한 차원 위에서 그들의 정신적 만남이 가능하다. 물론 모국어의 세계상은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언어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다.

3. 행위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전쟁이 18개(23.38%)로 가장 많고, 외국이 8개(10.39%)로 다음으로 많으며, 일정지역과 국내가 각각 7개(9.09%)로 세 번째로 많다. 그리고, 혁명이 5개(6.49%)이고, 선전포고가 4개(5.19%)이며, 봉화, 응징, 세계, 이념, 구원병이 각각 3개씩(3.9%)이며, 핵무기와 긴장(緊張)이 각각 2개(2.6%)이다. 국토, 군인, 예방, 방어, 제3국, 도덕, 신(神), 선전, 적군이 각각 1개씩(1.3%)으로 분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분포로 미루어 보아 행위의 객체는 전쟁과 외국 및 국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과 선전포고에도 큰 관심이 표현되어 있다.

4. 전쟁 자동사의 내용 중 긍정적인 표현은 17개(22.08%)이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은 11개(14.29%)이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은 11개(14.29%)로 분포되어 있다.

5. 우리 국어는 숫적으로 한자어가 많은 편이다. 훈민정음이 비록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문자로 창제되었다 하나, 그것을 실제로 배우고 쓴 계층이 실질적으로 사대부들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사대부들에 의하여 한자어가 한글로 적혀오는 과정에서 한자어는 국어 어휘체계 속에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어 왔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한자어가 계속 증가되어 마침내 국한문 혼용이라는 기구한 문자생활을 하게 된, 이른바 개화기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한자어 폭주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한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과 문화적 풍토는 고유어에 의한 조어 능력마저 감퇴되기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는 한자어를 쓰지 않고 노래말 한 줄은커녕 편지글 한 대목도 쓸 수 없는 기형적 언어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석보상절뿐만 아니라, 선조대왕의 언문 교지나 숙종 때의 사대부의 편지글들이 고유어로 짜여졌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풍부한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국어를 다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김종택, 1992:88).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한자어가 70개(90.91%)로 거의 전부이고, 고유어는 4개(5.19%)에 불과하며, 고유어와 한자어가 융합된 혼종어는 3개(3.9%)이다. 그리고, 서구 외래어는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참 고 문 헌

- 강호진(1989), “언어발의 형식화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언어내용연구」. 태종출판사.
- 金光海(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 金命鎬·文榮漢(1993), 「教養保健」. 延世大 出版部.
- 金敏洙(1972), 「新國語學」. 一潮閣.
- 金芳漢(1983), 「一般言語學概要」. 一潮閣.
- 김시업 역(1994), 「심리학」. 문음사.
- 김유진 외2인 역(1994), 「심리학 개론」. 螢雪出版社.
- 金應模(1989), 「國語平行移動自動詞 낱말발」. 翰信文化社.
- (1993), 「國語移動自動詞 낱말발(1)-平行移動篇」. 曙光學術資料社.
- (1993), 「國語移動自動詞 낱말발(2)-垂直移動篇」. 曙光學術資料社
- (1996), 「韓國語 身體關聯 自動詞 낱말발」. 도서출판 박이정.
- 김종택(1992), 「어휘의미론」. 탐출판사.
- 남기심 외2인(1985), 「언어학개론」. 탐출판사.
- 朴炳采(1973), 「古代國語研究」. 高麗大 出版部.
-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 출판부.
- 배해수(1982), 「현대국어 생명종식에 대한 연구」. 태양출판사
- (1990), 「국어내용연구(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 (1992), 「국어내용연구(2)」. 국학자료원.
- (1994), 「국어내용연구(3)」. 국학자료원.
- 裴禧任(1988), 「國語被動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 서울대 심리학연구실 역(1991), 「집단심리」. 星苑社.
- 서정수(1975), 「동사 ‘하’ 문법」. 형설출판사.
- 宋秉鶴(1974), “「하」에 관한 연구” 忠北大 大學院(박사).
- 신익성(1974): “Weisgerber의 언어이론-해석과 주석적 비판” 「한글」  
153호. 한글학회.
- 신현숙(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 沈雨晟(1982), “傳承놀이”. 「韓國民俗大觀」4.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 沈在箕(1983), 「國語語彙論」. 集文堂.
- 우리말내용연구회 편(1994), 「우리말내용연구」. 창간호. 국학자료원.
- (1995), 「우리말내용연구」. 2호. 국학자료원.
- 俞惠善(1993), 「家庭生活寶鑑」. 신나라.
- 尹光鳳(1995), 「韓國口碑文學概論」. 民俗苑.
- 윤진·최상진 역(1990), 「사회심리학」. 探求堂.
- 李基哲 외2인(1992), 「運動과 健康生活」.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李杜鉉 외2인(1988), 「韓國民俗學概說」. 學研社.
- 이성준(1993), 「언어내용이론」. 국학자료원.
- (1994), 「언어학개론」. 국학자료원.
- 李益煥(1986), 「意味論概論」. 翰信文化社.
- 任東權(1973), 「韓國의 歲時風俗」. 瑞文堂.
- 임지룡(1993),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田秀泰(1986), 「國語移動動詞研究」. 翰信文化社.
- 鄭相珍(1994), 「우리민俗의 理解」.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시호(1994), 「어휘장이론연구」. 경북대 출판부.
- 허 발(1977), “Coseriu의 의미연구와 날말발”. 「언어학」 2. 한국언어학연구회.
- (1985), 「날말발이론」. 고려대 출판부.
- (1985), 「언어내용의 핵심문제」. 고려대 출판부.
- 洪大植 譯(1990), 「사회심리학」. 博英社.
- 洪錫謨(1911), 「東國歲時記」. 朝鮮光文會.
- 홍승우(1988), 「의미론입문」. 청록출판사.
- 金光海(1087), 「類意語·反意語 辭典」. 한샘.
- 신기철·신용철(1980),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李家源·張三植(1973), 「詳解漢字大典」, 庾庚出版社.
- 이희승(1085),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Coseriu, E. (1973): Probleme der Strukturellen Semantik, Tübingen.

Geckeler, H. (1973): Strukturelle Semantik des Französische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Martin,S(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Nida,E.A(1979):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Approches to Semantics). Mouton.
- Palmer,F.R(1976): Semantics. London. Cambridge Uive Prees.
- Ramstedt,G.I(1939): A Korea Grammer. Helsink.
- Trier,J(1973): Der deutsche Wortschazt im Sinnbezirk des Verstander Heidelberg.
- Weisgerber,L(1962): Grundzuge der inhaltbezögenen Grammatik Schwann. Düsseldorf.
- (1964): Das Menchheitsgesetz der Sprach. Quelle & Meyer Verlag, Heidelberg.
- (1967): Sprachgemeinschaft als Gegenstand Sprachwissenschaftlicher Forshung. Westdeucher Verlag.
- (1971): Die Muttersprache in Aufbau unserer Kultur.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